

행정학의 학문적 위신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행정학보와 한국정책학회보를 중심으로

An Exploratory Study on Academic Prestige of Public Administration
through Interdisciplinary Relations with Other Academic Fields

박치성* · 심준섭**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행정학의 다학문성을 바탕으로 행정학이 다른 학문들과 비교하여 얼마나 학문적 영향력이 있는가를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른 학문들과 비교하여 행정학 내부의 피인용(자기인용)과 다른 학문분야로부터의 피인용 양태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와 행정학의 하위 학문 분야별로 다른 학문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분석하였다. 자료 수집은 행정학 관련 2개의 전문학술지(행정학보와 정책학회보), 인접 사회과학 학문인 정치학과 사회복지학의 대표적인 학술지 각 1개 등 총 4개의 학술지를 선정하고, 2002~10년간 게재된 총 2115개의 논문을 대상으로 피인용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1) 다른 학문에 대한 행정학의 인용이 정치학이나 사회복지학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남으로써 행정학의 내향적 다학문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그러나 행정학의 학문 내 위상에 비해 다른 학문들에 대한 외향적 위상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행정학의 하위연구분야 중, 전통적인 행정학의 주요 분야인 조직론은 인접 학문에 높은 영향을 보이는 반면, 행정개혁이나 거버넌스 등 행정학 내부에서 큰 영향력이 있는 학문분야는 상대적으로 다른 학문에 대한 영향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행정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주제어: 학문적 위신, 외향적 다학문성, 피인용수 분석

* **朴致成**(제1저자): 피츠버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부교수로 재직중이며, 주요관심분야로는 사회적기업, 비영리조직, 정책이론 등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경계분석을 통한 정책문제 정의에 관한 연구(2012)", "사회적기업지원 정책이전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산출 정도 비교연구(2012)", "행정학 학문공동체의 공동연구 네트워크 구조에 관한 연구(2012)" 등이다. (csp7111@gmail.com)

** **沈俊燮**(교신저자): 미국 뉴욕주립대(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관심 분야는 갈등관리와 협상론, 의사결정론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규제 수용성의 결정 요인에 관한 경험적 연구: 금융 규제를 중심으로(2012)", "언어네트워크분석 기법을 활용한 갈등프레임의 분석(2011)", "원지력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의 갈등 프레임 분석: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을 중심으로(2011)" 등이 있다. (jsshim@cau.ac.kr)

I. 서 론

한국에서 행정학이 독립적인 학문분과로 인정받아 대학에서 독립적인 학과 및 대학원이 설립된 지도 60여 년이 지났다. 1948년 서울대에 최초로 행정학이 도입된 이후 현재 전국에 157개 대학에 행정학과가 있으며 한국행정학회에 회원으로 등록된 학자만도 2천 명에 이른다.¹⁾ 또한 현재 행정학 중심의 전문학술지는 행정학 분야 27개, 정책학 분야 12개 등 총 39개(등재지 27개, 등재후보지 12개) 학술지가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되어 있다. 그 밖에 행정학자들이 많이 투고하는 다른 사회과학 학술지까지 포함한다면 그 숫자는 훨씬 커진다. 이는 정치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같은 다른 주요 사회과학 분야들과 비교할 때 국내에서 행정학이 차지하는 높은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응용사회과학은 공동체, 조직, 사회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심리학 등의 학문들로부터 나온 기본적인 사회과학 지식들을 활용하는 학문을 말한다(Goodwin, 1996). 이러한 응용사회과학 중에서도 행정학은 대표적인 학문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특히 행정학은 다양한 시각에서 공동체와 사회의 제반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위해 정부의 관리와 정책을 개선하는데 궁극적인 존재의 목적을 두고 있음을 고려할 때(Rabin, Hildreth, & Miller, 1989), 행정학의 응용과학적 특성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하겠다.

이러한 응용학문으로서 행정학의 정체성 중 핵심은 다학문적(inter-disciplinary)이라는 것이다. 다학문적인 행정학은 정치학, 철학, 경제학, 조직이론, 사회학, 사회심리학의 학문 분야들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Fox & Miller, 1995). 이러한 학문분야들은 행정학에 다양한 이론들과 방법론을 제공하는 원천이 되고 있다. 비록 행정학의 다학문적 성격과 통일된 인식론의 부재가 행정학의 정체성 논쟁을 불러오기는 했지만(Raadschelders, 1999; Waldo, 1968), 현재 행정학의 다학문성은 그 자체로 행정학의 정체성이 되었다(Rutgers, 1998). 행정학의 다학문성은 그 자체로 행정학이 다른 사회과학 분야들로부터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들을 받아들이는 혈관으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Raadschelders(1999)는 행정학은 다른 학문분야들로부터 정부라는 현상에 대해 보다 큰 이해를 얻기 위해 다양한 접근법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단언한다.

이처럼 지금까지 행정학이 다학문적이라고 규정할 때, 주로 행정학이 다른 학문분야의 이론이나 모형들을 어떻게,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는가의 내향적 다학문성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러한 피동적인 관점에서의 행정학과 다른 학문들 간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분석은 행정학의

1) 한국행정학회 2011년 회원명부를 기준으로 함.

연구대상(locus)과 연구초점(focus)을 형성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Henry, 1975). 그러나 이제 행정학은 독자적인 학문으로서 자리 매김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국내 사회과학의 중추적 학문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행정학이 어떤 학문분야들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외향적 위신²⁾에 대한 평가는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주요 행정학 학술지에 게재된 행정학 논문들에 대한 피인용 수준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행정학 논문을 피인용하는 데 있어 행정학 내부의 피인용(자기인용)과 다른 학문분야로부터의 피인용 양태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다른 사회과학 분야들과 비교하였을 때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행정학의 하위 학문 분야별로 다른 학문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즉, 학문 내 인용이 주로 되는 하위 분야와 다른 학문으로부터 인용이 주로 되는 하위 분야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봄으로써 사회과학 내에서 행정학의 학문적 위상과 영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시도하였다.

II. 이론적 논의

1.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 다학문성(interdisciplinary)과 실용성

행정학의 역사는 다른 학문들과의 공진화(coevolution)의 역사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행정학은 다른 학문들로부터 다양하고 경쟁적인 이론과 방법론들을 받아들임으로써, 끊임없이 자신의 지식 경계를 새롭게 규정하고 학문적 진화에 필요한 동력을 마련해왔다. 행정학자들은 다른 학문 분야들과의 관계 속에서 적절한 연구초점과 연구대상을 설정하고(Henry, 1975), 또한 행정학을 다른 학문들로부터 차별화하고 정당화시킬 수 있는 지식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Breaux, et al., 2003). Mosher(1982)는 행정학의 다학문적이고 다전문적인(inter-professional) 접근이 더 이상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이나 취미삼아 하는 실험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2) 위신(prestige)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에게 의해 여겨지는 존경의 정도 또는 널리 인식된 현저성(prominence)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학문적 위신은 특정 학문이 다른 학문들에 의해 얼마나 현저하게 인식되는가로 정의하고자 한다. 학문적 위신은 특정 학문이 다른 학문에 대해 갖는 학문적 영향력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 즉 특정학문에서 연구되는 이론·방법론 등의 논의들이 다른 학문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크다면, 이는 그 학문이 다른 학문에 영향력이 있음을 의미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위신을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영향력으로서의 위신을 측정하기 위해 특정학문분야 학술 논문에 대한 피인용지수를 측정도구로 이용하였다. 즉 A라는 학문분야의 학술지에서 B라는 학술분야의 학술지를 상대적으로 많이 인용하였다는 것은 B라는 학문분야가 A라는 학문분야에 대해 지닌 학문적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학의 학문적 정체성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정무권, 2006; 259). 이는 행정학이 사회과학의 독립분과(social science)이며, 응용과학(applied science)으로서, 다학문적 성격(interdisciplinary science)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다학문성은 행정학의 인식론적 정체성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였지만(Raadschelders, 1999; Denhardt, 1990), 행정현상을 이해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행정학의 다학문적 성격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행정학 이론의 다양성은 심각한 한계이면서 또한 동시에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다(Denhardt, 1990). 다학문성은 실천적·응용적 학문으로서의 행정의 문제해결 능력의 기름진 토양이 되고 있다. 행정학이 받아들이는 다양한 이론과 방법들은 학문의 세계 속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행정과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

급속한 정치 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복잡성의 증대 속에서 정부의 본질과 가치, 정부와 사회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다. 정부가 다루어야 하는 사회문제들은 더 이상 분해 가능한 쉬운 문제들이 아니며, 서로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의 성장 속에서 기대치가 높아진 국민은 정부에 대해 뛰어난 문제 해결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는 행정학으로 하여금 다른 학문분야들로부터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이론이나 기법들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들고 있다. 행정학은 다학문성을 토대로 인접 학문과의 끊임없는 교류를 이끌어 내고, 또한 이를 통하여 복잡한 사회현상을 보다 적절히 설명하고 더 나은 대안들을 개발해 냄으로써 자신의 학문적 생존을 보장받게 된다. 행정현상과 관련된 이슈나 문제들에 대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지닌 학자들과의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 더욱 다원화될 때만 행정학은 실천적, 이론적 학문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정무권, 2006; 안병영, 2006).

행정학의 연구초점(focus)과 연구대상(locus)은 시대변화에 따라 진화해왔다(Henry, 1975). 행정학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기술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행정현상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처방을 해야만 하는 응용학문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다른 인접학문들과 학문적·실천적 교류를 통하여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컨대, 현재 행정학 연구에 있어서 핵심 주제중 하나인 거버넌스는 정치학과 사회학의 이론적 지원 속에서 행정학의 외연을 확장하고 새로운 차원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김현구, 2005, 김대건·오수길, 2007: 232 재인용).

재무행정에 있어서도 변화하는 현실에 적응하기 위하여 인접학문과의 융합을 통한 다학문성이 요구되고 있다(배득중, 2006). 지방행정 역시 정치와 행정의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지방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학과 정치학의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이승중, 2006). 행정학과 마찬가지로

정책학에서도 다학문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정책학은 복잡한 사회현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기 위하여 인접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으로부터의 지식을 받아들이고, 이를 토대로 포괄적이고 다학문적인 지식체계의 구축을 시도해 왔다(노화준, 2003; 송희준, 2008; 허범, 1999).

이렇듯 행정학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응용학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다학문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커다란 반론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행정학은 다학문성을 목표로 해야 하는 상황이다(Rutgers, 2010). 그러나 현실의 한국 행정학은 자신의 경계 내에 고립된 채로 학문적 상아탑을 쌓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다학문성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정작 다학문적 연구풍토는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못한 현실이다(김인철, 1992, 안병영, 2006: 424 재인용). 현재 대학에서의 행정학 교육은 인접 학문과의 교류를 통한 외연확장보다는 행정학 중심의 고립된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종범, 2005). 더욱이 한국 행정학자들의 학문적 배경을 살펴보면, 학부부터 대학원까지 행정학을 교육 받은 순혈주의 전통이 강조되면서 한국행정학계의 폐쇄성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실천적 학문으로서의 행정학 발전에 심각한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정무권, 2006).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실천적 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행정학이 개방적인 학문으로서의 자세를 가져야만 할 것이다.

2. 정치학과 사회복지학의 학문적 성격

행정학은 다른 어떤 학문보다도 정치학, 사회복지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들 학문과의 상호의존적인 관계는 행정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경계를 규정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다.

우선, 정치학은 행정학과 정책학의 모태 학문으로서, 행정학의 근간이 되는 주요 이론과 접근방법들을 제공해온 학문이다.³⁾ 정치학은 국가, 집단과 기타 정책결정과정 등에서의 정치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MacKenzie(1967)는 정치학의 자연과학 방법론에 대한 의존을 부정하면서, 정치학의 체계화된 지식 제공을 강조하였다. 지금까지 정치학의 정체성은 주로 1) 자연과학과 대비되는 과학성, 2) 법학, 철학 등 타 학문과 비교한 독자성, 3) 미국 중심의 정치학에 대한 주체성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다(강정인·정승현, 2010). 이처럼 이론적 정교함과 과학적인 방법론은 정치학 연구공동체 내에서 학문적 위상에 대한 자부심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져왔다.

지금까지 정치과정, 정치행태, 정치제도 및 기능, 정치사상 등 정치학자들이 다루는 이슈들은

3) 초기 국내 행정학자들 간에는 행정학을 정치학의 하위 분야로 간주하고, 분과학문으로 이해하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박동서, 1978).

행정학자들의 연구 주제나 대상 선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다. 실제로 1887년 행정학의 창시자인 윌슨(Wilson)의 논의 이후 정치학의 동향은 행정학의 패러다임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변수로 다루어졌다(Henry, 1975). 두 학문은 서로 중첩된 영역을 가지고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관계이지만, 정치학이 자신의 연구대상 정치영역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행정학의 연구영역은 커다란 영향을 받아왔다(배응환, 2000).

현재 행정학과 정책학에서 다루지는 거버넌스, 행정체계, 관료제, 정책결정, 의회의 역할 등에 대한 실증적, 경험적 논의는 정치학의 이론과 접근방법들에 뿌리를 두고 있다(정정길 외, 2010). 대표적으로, 정치와 정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논리실증주의, 행태주의, 체계이론, 비판이론, 제도주의론, 다윈론과 엘리트론, 거버넌스이론 등은 행정 현상 연구에 필요한 핵심 이론들을 제공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학은 정치학이나 행정학에 비해 후발 학문으로서, 사회복지라는 사회현상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사회복지학은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등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들을 바탕으로 응용된 학제적 학문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송근원·김태성, 2002). 국내 사회복지학은 미국식 사회사업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국가주도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폐해들을 치유하기 위한 시대적 필요성에 의해 매우 단기간에 뿌리를 내린 독특한 학문이다. 이처럼 특수한 토착화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복지학 역시 정체성 논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국내 사회복지학의 정체성 문제는 1) 타학문으로부터의 독립성, 2) 임상과 정책간의 내적인 체계성, 3) 과학성과 실천성, 4) 문화적 토착성에 대한 논쟁으로 축약될 수 있다(이혜경, 1996).

현재 국내 사회복지학은 연구방법이나 접근법에서 단독학문으로서의 독립성이 취약한 상황이며, 매우 다양한 분야들을 포괄하는 종합과학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이혜경, 1996). 특히 사회복지학의 하위 분야인 사회복지행정과 사회복지정책은 임상 중심의 사회사업에 비해 학제적 성격이 강하며, 정치학, 심리학, 행정학 등 인접학문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사회복지행정과 사회복지정책에서 다루지는 내용들은 상당부분 행정학, 정책학의 내용들과 중첩되고 있다(송근원·김태성, 2008; 최성재·남기민, 2006).⁴⁾

4) 사회복지행정론의 경우 사회복지 조직 및 행태, 기획과 의사결정, 인사, 재정관리, 정보관리, 리더십 등에서 행정학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며, 사회복지정책론의 경우 사회복지 정책 의제형성, 대안형성, 결정, 집행, 평가, 정책가치 등에서 정책학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2. 선행연구 검토

지금까지 다수의 연구자들이 국내 행정학의 학문적 경향을 분석하였다. 행정학 학문의 경향분석은 크게 경향연구, 인용분석, 기고자 분석 등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박홍식, 2006).

첫째, 행정학의 전반적인 연구경향을 분석한 연구들로서, 행정학 학술지 게재논문과 학술대회 발표논문을 대상으로 학문 경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권경득, 1996, 2006; 박홍식, 2006; 안병만, 1986; 주상현, 2002).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연구주제, 방법론, 연구자의 특성들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최근 들어 이러한 기술적 연구를 넘어서 행정학 학문 공동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사회적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로까지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즉 행정학의 연구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들(김재훈, 2008; 송희준, 2008; 오철호, 2008; 한인숙, 2008)과, 행정학 공동체의 지식 생산물로서 행정학 논문들에 대한 인터넷에서의 수요와 공급을 네트워크 분석한 연구(박치성·고길근, 2009) 등이 나타났다. 또한 행정학이 시대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 연구(박순애, 2007; 박치성, 2008)들도 나타나는 등 행정학 연구경향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기고자 분석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로서, 기고자의 개인적 특성 및 기고자 수의 빈도분석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들(김대건·오수길, 2007; 박홍식, 2006; 최영훈·이강춘, 2009)이 있다. 나아가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연구자간 학문적 협동관계의 구조적 특성을 밝혀내고, 어떠한 요인들이 연구자의 학문적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 연구도 있다(박치성, 2012).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초점이 되는 행정학 관련 (피)인용 수준을 분석한 연구들이다. 이러한 연구에는 인용분석을 통하여 행정학과 다른 학문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박홍식, 1994), 학술지 인용 감소현상을 분석한 연구(이가중·윤석경, 1996, 정진식, 1994) 등이 포함된다. 이가중·윤석경(1996)은 11개의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분석하였으며, 행정학보의 경우 하나의 학술지에 인용이 편중되어 있음을 밝혀냈다. 또한 박치성·김경훈(2009)은 행정학 논문의 소비라는 측면에서 행정학 주요저널에서 특정 논문이 피인용된 횟수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행정학 연구 분야 중 거버넌스와 신공공관리 분야의 논문이 다른 분야 논문들에 비해 더 많이 인용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행정학의 내향적 다학문성에만 주목함으로써 행정학이 다른 학문 분야 이론과 방법들을 얼마나 인용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데 국한되고 있다. 그 결과 행정학 논문들이 다른 학문들에 의해 얼마나 피인용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행정학의 위상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인용분석(citation analysis) 논문으로서 지금까지의 행정학

학문경향 분석 연구들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차별화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행정학의 내향적 다학문성이 아닌 외향적 위상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본 연구는 행정학이 정치학과 사회복지학 등 인접 사회과학 학문들과 비교하여 다른 학문분야에서 피인용 되는 수준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둘째, 행정학의 하위 학문분야별로 다른 학문들과의 교류 수준을 분석하여, 교류가 적은 고립된 분야와 상대적으로 다학문적 성격이 강한 분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설계

1. 연구범위 선정

행정학의 위상을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는 행정학을 비롯하여, 인접 사회과학 분야 중에서 정치학과 사회복지학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상의 이론적 배경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회학, 언론학, 경제학 등 다른 사회과학 분야들과 비교하여 정치학과 사회복지학은 행정학과의 학문적 인접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문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정치학의 경우, 정치학자였던 Wilson에 의해 관리로서 행정학이 태동할 수 있었던 모태가 된 학문분야라는 측면(Dryzek & Dunleavy, 2009)에서 행정학과의 학문적 인접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학의 경우, 복지행정과 복지정책에 대한 논의가 행정학과 정책학의 핵심 연구 분야임을 고려할 때 학문적 인접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⁵⁾

세 개 학문분야의 학술지 선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이루어졌다. 학술논문은 지식재의 일종으로 소비하기 전에는 그 가치를 알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박치성·고길곤, 2009). 그러나 학술논문의 소비자 입장에서 모든 논문을 소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당 학문 공동체에서 높은 평가를 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소비가 상대적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학술지 선정기준으로 3개 학문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학술지들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자들이 3개 학문분야의 주요 학술지들을 모두 다루기 어렵다는 시간적, 물리적 제약도 고려되었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서 제공하는 영향력지수가 가장 높은 학술지들을 선정하였다. 행정학의 경우 한국행정학보(영향력지수=2.09), 정치학은 한국정치학회보

5) 실제로 국내 1세대 행정학자들은 대부분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또한 초기 사회복지학자들은 행정학 박사학위를 지닌 사람들이 많았다.

(영향력지수=1.32), 사회복지학은 한국사회복지학(영향력지수=2.0)이 자신의 학문분야에서 가장 영향력지수가 높은 학술지로 나타났다. 여기에 덧붙여, 본 연구의 목적인 행정학의 학문적 위신에 관한 보다 심층적이고 다측면적인 연구를 위하여 행정학 분야의 또 다른 주요 학술지인 한국정책학회보(영향력지수=1.67)를 분석대상에 추가하였다.⁶⁾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2년부터 2010년 12월까지이다.⁷⁾ 한국연구재단의 한국학술지 인용색인에서는 2002년 이후 출간된 논문에 대하여만 검색이 가능하며, 피인용을 한 논문의 경우 2008년 이후 출간된 논문이 그 이전에 출간된 논문을 피인용한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모든 피인용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발간된 한국행정학회보 575편, 한국정책학회보 412편, 한국정치학회보 641편, 한국사회복지학 487 편 등 총 2,115편의 논문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2. 자료 수집 및 측정(변수)

본 연구에서 인용분석 대상인 4개 분야 4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이 피인용된 자료의 수집을 위해 한국연구재단의 국내학술지 인용색인(<http://www.kci.go.kr>)에서 제공하는 개별논문에 대한 피인용 자료가 활용되었다. MS 엑셀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논문마다 인용빈도와 인용 학술지에 대한 자료를 측정변수별 코딩 기준에 따라 입력하는 방식으로 인용분석용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단위(unit of analysis)는 개별 논문이며, 측정 변수에는 논문이 수록된 학술지, 발행년도, 전체 피용인수, 각 학문 내 피인용지수와 타학문에서의 피인용지수, 타 학문에서 피인용한 경우 학문분야, 행정학의 경우 행정학 하위 학문분야 등이 포함되었다. 각 측정변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표 1>과 같다.

6)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서 제공하는 행정학 분야 학술지들의 영향력지수를(가장 최근 데이터인 2010년 기준) 살펴보면, 한국행정학회보가 2.0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국정책학회보가 1.67로 나타났다. 나머지 학술지들의 경우,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33, 행정논총 1.26 등 1.5점을 넘는 학술지들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7) 2011년 논문들의 경우 피인용을 받은 숫자가 매우 미비하며, 2012년 논문들의 경우 자료 수집을 한 시기(2012년 6-8월)에 피인용을 받은 숫자가 없기 때문에 제외하였음.

〈표 1〉 측정변수와 측정방법

변수명	내 용		측정 방법	척도
Journal	수록 학술지(학문분야별)		행정학, 정치학, 사회복지학	명목
Year	발행년도		년	등간
Citation	피인용수	피인용수 합계	갯수	비율
		학문 내	갯수	비율
		다른 학문	갯수	비율
Aca_field	다른 학문분야	대분류	5개	명목
		사회과학 내	17개*	명목
PA_sub	행정학 하위학문분야		〈표 2〉 참조	명목

* 경영학, 경제학, 경찰학, 관광학, 교육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언론학, 심리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지역개발학, 지역학, 행정학, 사회과학일반/기타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 학술지의 위상(reputation)은 해당학술지에 대한 인용(citation) 빈도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인용빈도 측정법(citation-counting method)은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학술지의 위상평가방법이다. 일정기간 동안의 특정 저자 또는 학술논문에 대한 인용빈도를 측정함으로써 해당 저장 또는 학술논문의 위상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다(Garfield, 1955, 1979; Campbell, et al., 1999).

다른 학문분야에 대한 분류는 대분류로써, 사회과학, 인문학, 자연과학(공학, 의학 포함), 예술체육, 복합학 등 총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사회과학에 대한 분류는 한국 연구재단의 분류체계를 기준을 수정적용하여 행정학을 포함한 17개의 학문분야로 구분하였다⁸⁾.

행정학의 하위분야(연구주제)를 분류하는 합의된 기준을 찾아보기는 어렵다(주상현, 2002; 박홍식, 2006; 김대건·오수길, 2007).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행정학자들의 행정학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초기의 분류(대표적으로, Corson & Harris, 1963)에 비해 최근의 분류체계는(대표적으로, Lerner & Wanat, 1992; Bingham & Bowen, 1994) 행정학을 훨씬 세분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행정학의 패러다임 변화가 행정학 분류체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초기 Corson

8) 한국연구재단의 분류를 수정적용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경영학의 경우 회계학과 무역학을 포함하였음. 2) 경찰학의 경우 연구재단의 분류는 행정학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하위학문 분야로 행정학이라기보다 독립된 경찰학으로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따로 구분하였음. 3) 정책학으로 분류되어 있는 학술지 중, 현재 행정학계에서 널리 인정되는 학술지는 행정학으로, 행정학과 실제로 차이가 있는 학술지는 사회과학 일반으로 재분류하였음.

& Harris(1963)의 분류는 조직, 인사, 행정통제 등 전통적인 행정학 분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후 McCurdy & Cleary(1984)는 정책분석을 새로운 분야로 추가하였고, 비슷한 시기에 Perry & Kraemer(1986) 역시 공공정책과 시민참여를 새로운 분야로 추가하였다. 1990년대 이후 행정학 분류체계는 급격히 세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Lerner & Wanat(1992)은 현대적 복잡성과 행정적 현실과 행정윤리를 새롭게 분류 분야로 제시하였고, Bingham & Bowen(1994)은 정책학 분류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결정, 관리과학 및 기술, 공공정책분석, 정책집행 등으로 세분화하였다.

국내의 행정학 학문경향 연구들도(권경득, 2006; 박치성, 2008; 박홍식, 2006; 주상현, 2002) 이상의 해외 연구와 유사한 분류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권경득(1996)은 9개의 대분류(행정이론, 방법론, 조직론, 인사행정, 재무행정, 정책및기획론, 행정관리(정보), 지방자치 및 도시행정, 분야별 행정 및 정책)와 각 대분류에 따른 다수의 중분류를 제시하고 있다. 주상현(2002)은 권경득(1996)의 분류를 참조하여 행정학 연구 분야를 8개로 대분류(① 행정이론, ② 조직론, ③ 인사행정, ④ 재무행정, ⑤ 정책 및 기획, ⑥ 행정관리, ⑦ 지방자치 및 도시행정, ⑧ 기타)하였다. 반면 박홍식(2006)은 26개의 대분류(행정학 일반, 방법론, 조직론, 인사행정, 재무행정, 정책학, 기획론, 규제행정, 행정관리, 행정서비스, 지방행정, 행정정보, 행정통제, 비교행정, 발전행정, 행정문화, 행정윤리, 행정사, 행정개혁, NGO, 북한행정, PR, 지식행정, 국제행정, 개별 연구분야, 기타) 체계를 제시함으로써 훨씬 세분화된 분류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박치성(2008)은 행정윤리, 행정의 공공성, 공공부문 역량강화, 전자정부/정보기술관리, 정책과정 개선, 행정개혁, 거버넌스, 전통적 행정관리(인사/재무/조직), 행정학 패러다임 구축, 국가발전 장기종합계획 구축, 행정의 국제화/세계화, 환경행정의 12개 분야로 나누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학문경향 연구들에서 제시된 분류체계와 현재 한국학술지 인용색인에서 제공하는 분류기준을 동시에 고려하여 행정학의 연구 분야들을 분류하였다. <표 2>는 본 연구에 이용된 행정학 하위학문 분류체계를 정리한 것이다.

<표 2> 행정학 하위학문 분류

분류(코딩번호)	내 용
일반(행정/정책학이론)(1)	행정학 또는 정책학의 학문경향 분석,
조직(2)	조직구조, 조직행태. 관료제/공공관리는 내용에 따라 조직 또는 인사로 분류
인사(3)	공무원 임용, 교육훈련
재무/예산(4)	예산과정, 지방예산 포함

분류(코딩번호)	내 용
방법론(5)	행정학 또는 정책학의 연구 방법론 자체에 대한 연구
규제(6)	규제, 규제개혁
지방행정/정책(7)	지방, 도시, 지역개발, 정부간관계론
행정윤리(8)	공직윤리, 공직자 부패, 지대추구(rent seeking)도 포함
NGO(9)	시민단체, 비영리단체
국제/비교행정, 정책(10)	비교행정, 비교정책
지식관리(11)	지식관리
거버넌스(12)	일반거버넌스, 로컬거버넌스, 주민참여, 지방자치, 정책네트워크, 사회자본
행정개혁(13)	성과평가(효율성 측정 포함), 민영화, 고객지향, 신공공관리, 공기업 평가, 정부업무평가, 성과관리도 포함
갈등관리(14)	정부-민간, 정부-정부간 갈등
복지/사회복지정책(15)	일반 복지행정, 복지정책
소수자정책(16)	여성정책, 아동(일반 복지제외), 탈북자, 다문화, 외국인 정책 포함
재난/위기관리(17)	재난관리, 위기관리, 위협관리
정책변동(18)	정책확산, 정책변동
과학기술(R&D)정책(19)	과학기술 정책, R&D 정책
문화정책(20)	문화정책
보건/의료정책(21)	보건정책, 의료정책
산업정책(22)	산업안전 포함
정보통신정책(23)	정보화, 전자정부 포함
정당/대통령(24)	정당, 대통령, 선거
환경정책(25)	환경정책
행정사(26)	조선시대 행정연구, 행정의 역사
기타(27)	공공관계(PR), 경찰, AHP, 종교, 교육 등 연구 사례가 5개 이하인 경우
정책분석(28)	정책 사례보다는 정책분석, 결정, 집행, 평가 등 정책과정 자체에 대한 분석이 핵심인 연구

IV. 분석결과

1.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분석에 이용된 논문들은 학술지별로 피인용 빈도에서 약간의 편차를 보였다.

4개 학술지에 게재된 총 2,115편의 논문 중 1,666편(78.8%)의 논문이 1회 이상 피인용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한국정치학회보에 게재된 논문들의 피인용 빈도(1회 이상)가 30.3%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행정학 2개 학술지에 게재된 987편의 논문 중 피인용 빈도가 1회 이상인 논문은 807편(81.8%)로 나타났다. 한국정책학회보에 게재된 논문들의 피인용 빈도는 79.4%로 나타난 반면, 한국행정학보의 피인용 빈도는 83.5%로 한국사회복지학(82.5%)이나 한국정치학회보(71.3%)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 분석에 이용된 논문

구 분	한국행정학보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사회복지학	계
1회 이상 피인용 논문	480(83.5%)	327(79.4%)	457(71.3%)	402(82.5%)	1,666(78.8%)
피인용 없는 논문	95(16.5%)	85(20.6%)	184(28.7%)	85(17.5%)	449(21.2%)
합 계	575	412	641	487	2,115

반면, 학술지 전체에서 피인용이 한 번도 안 된 논문은 21.2%(449건)이었으며, 이들 중 한국행정학보는 95편(480편의 16.5%), 한국정책학회보 85편(327편의 20.6%), 한국정치학회보 184편(457편의 28.7%), 한국사회복지학 85편(402편의 17.5%)로 나타났다.

〈표 4〉 변수별 기술통계(전체 논문 수=2,115편)

구 분	피인용된 논문수	최소값	최대값	피인용 평균	표준편차
총 피인용	1666	0	53	4.43	5.864
학문내부 피인용	1381	0	36	2.61	3.904
타학문으로부터 피인용	1260	0	29	1.82	2.779

구 분		피인용된 논문수	최소값	최대값	피인용 평균	표준편차
인문학으로부터 피인용		143	0	8	.10	.448
자연과학으로부터 피인용		206	0	7	.15	.528
예술/체육으로부터 피인용		47	0	4	.03	.233
복합학으로부터 피인용		167	0	4	.10	.363
사회과학 으로부터 피인용	소계	1134	0	26	1.45	.2,300
	경영학	109	0	4	.07	.348
	경제학	84	0	3	.05	.248
	경찰학	51	0	2	.03	.179
	관광학	45	0	4	.03	.220
	교육학	167	0	9	.12	.521
	문헌정보학	17	0	2	.01	.097
	법학	113	0	5	.07	.352
	사회복지학*	110	0	6	.08	.388
	사회학	94	0	3	.05	.235
	언론학	96	0	6	.06	.340
	심리학	39	0	6	.02	.200
	정치외교학*	117	0	4	.07	.306
	지리학	32	0	2	.02	.143
	지역개발학	89	0	2	.05	.233
	지역학	124	0	4	.07	.332
	행정학*	170	0	17	.14	.684
	사회과학일반/기타	598	0	9	.52	1,106

* 자신의 학문분야로부터의 피인용은 제외

4개 학술지 게재논문의 피인용 양태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면 <표 4>와 같다. 4개 학술지의 1,666편 논문에 대한 피인용 빈도의 평균은 4.4회로 나타났다. 각 학문별로 내부 피인용의 평균은

2.6회로 다른 학문으로부터의 피인용은 평균 1.8회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다른 학문들로부터 피인용의 경우, 사회과학 학문분야들로부터의 피인용이 평균 1.45회(총 1,134회)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자연과학, 인문학, 또는 복합학으로부터의 피인용은 평균 0.1~0.15회로 낮게 나타났으며, 예술/체육으로부터의 피인용은 평균 0.03회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과학의 하위 학문분야별 피인용 현황을 살펴보면, 자신의 학문분야로부터의 피인용을 제외하면 학문 간 피인용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개 학술지 전체 논문들에 대한 타 사회과학 학문분야들의 피인용은 문헌정보학 평균 0.01회로부터 행정학 평균 0.14회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편차를 보였다. 특히 행정학으로부터의 피인용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은 행정학의 내향적 다학문성이 여타 사회과학 분야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행정학으로부터의 피인용 빈도의 표준편차가 0.68로 사회과학 분야들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은 한국정치학회보와 한국사회복지학 게재 논문들에 대한 행정학 연구자들의 인용이 특정 논문들에 편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교육학 연구자들에 의한 분석대상 4개 학술지 인용이 평균 0.12회로 행정학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으로써, 교육학의 다학문성 역시 높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2. 행정학과 정치학, 사회복지학의 비교

4개 학술지에 게재된 전체 논문에 대한 피인용 현황 분석과 함께, 각 학술지별 피인용 현황을 비교분석하였다. 네 개의 학술지 별로 피인용 수의 평균을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학술지별 피인용수 평균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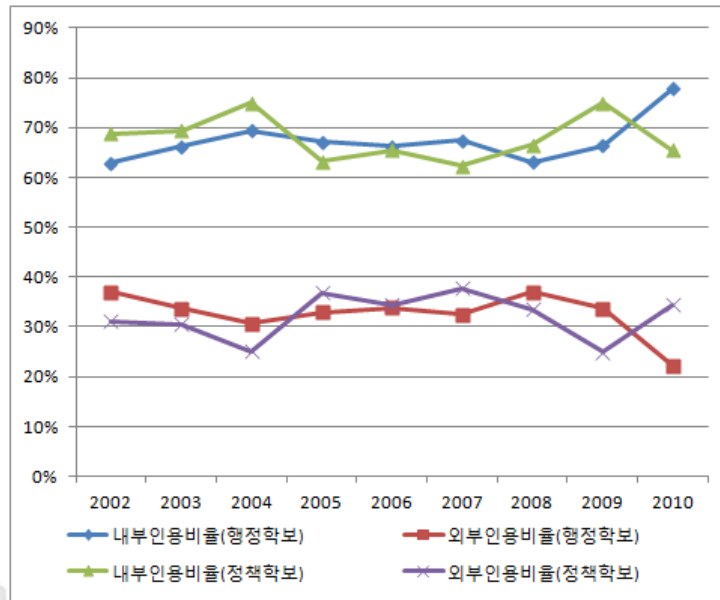
구 분	학술지	n	평균	표준편차	F값	p
총 피인용수	한국행정학회보	575	6.08	7.382	39.720 (df=3, 2111)	.000
	한국정책학회보	412	3.95	4.816		
	한국정치학회보	641	2.69	3.881		
	한국사회복지학	487	5.18	6.144		
각 학문내부로부터 피인용수	한국행정학회보	575	4.02	5.190	59.116 (df=3, 2111)	.000
	한국정책학회보	412	2.69	3.649		
	한국정치학회보	641	1.16	1.919		
	한국사회복지학	487	2.77	3.639		

구 분	학술지	n	평균	표준편차	F값	p
다른 학문으로부터 피인용수	한국행정학보	575	2.05	2.965	16,814 (df=3, 2111)	.000
	한국정책학회보	412	1.27	1.902		
	한국정치학회보	641	1.52	2.576		
	한국사회복지학	487	2.41	3.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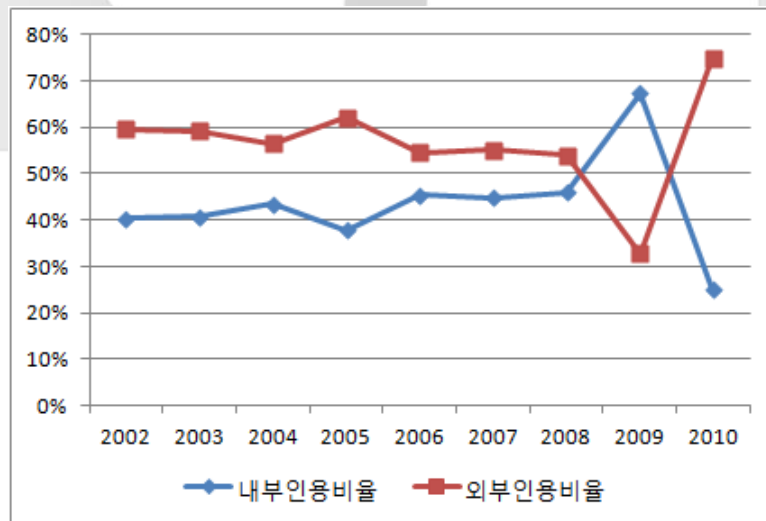
먼저 총 피인용 수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한국행정학보와 한국사회복지학의 논문 피인용수가 한국정책학회보와 한국정치학회보의 피인용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39.72$, $df=3$, 2111 , $p<0.001$).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학문별 피인용을 학문내부로부터의 피인용과 다른 학문으로부터의 학문 간 피인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학문 내부로부터의 피인용의 경우 한국행정학보(평균=4.02회)가 다른 3개 학술지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많은 내부 피인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59.116$, $df=3$, 2111 , $p<0.001$). 타학문으로부터 학문 간 피인용의 경우에도 한국행정학보(평균=2.05회)와 한국사회복지학(평균=2.41회)이 나머지 두 개 학술지와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많은 피인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F=16.814$, $df=3$, 2111 , $p<0.001$). 반면 한국정책학회보에 대한 다른 학문으로부터의 피인용은 가장 낮은 수준(평균=1.27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부터 〈그림 3〉은 4개 학문 분야별 피인용 수의 변화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한국행정학보와 한국정책학회보의 학문 내피인용과 학문 간 피인용간의 편차가 한국정치학회보나 한국사회복지학에 비해 훨씬 크게 나타났다. 두 행정학 학술지들의 학문 내 피인용은 높은 반면, 학문 간 피인용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정치학회보와 한국사회복지학은 학문 내피인용과 학문 간 피인용이 상대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으로써 한국행정학보나 한국정책학회보와는 대조를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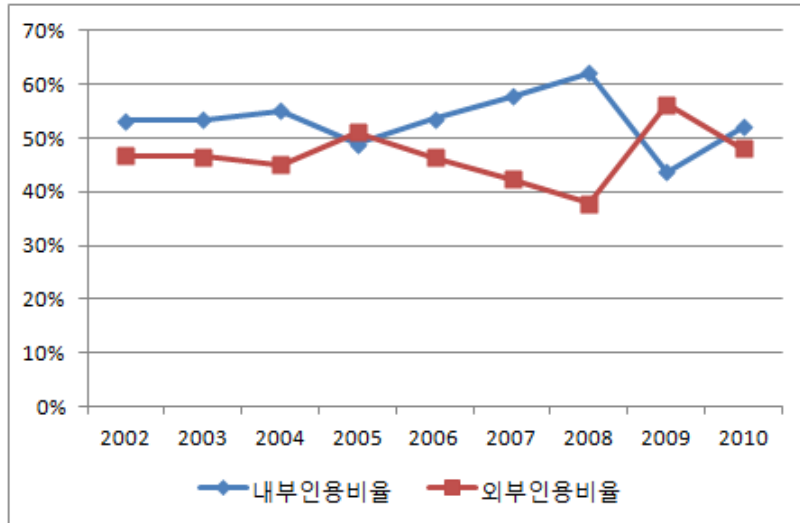
한국행정학보와 한국정책학회보의 경우 2002년 이후 9년간 학문 내 피인용 비율이 60~80%로 높은 반면, 학문 간 피인용 비율은 20~40%대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복지학의 경우 내부피인용 비율과 외부피인용 비율이 45~55% 대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정치학회보의 경우 다른 학문으로부터의 인용비율이 정치학 내부로부터의 인용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행정학 2개 학술지들과는 반대된 양상을 보였다.



〈그림 1〉 행정학(행정학보/정책학회보) 논문의 연도별 학문 내/ 학문 간 피인용수 추이 비교



〈그림 2〉 정치학 논문의 연도별 학문 내/ 학문 간 피인용수 추이 비교



〈그림 3〉 사회복지학 논문의 연도별 학문 내 / 학문 간 피인용수 추이 비교

이러한 결과는 한국행정학보의 경우 행정학 공동체 내부에서의 위상뿐만 아니라 학문의 대외적 위상도 어느 정도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점은 한국행정학보의 학문 내 위상에 비해 대외적 위상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한국정책학회보의 대외적 위상은 비교 대상 4개 학술지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학문대분류에 따른 4개 학술지간 피인용 평균 차이 비교

인용 구분	학보 구분	논문수	피인용 평균	SD	F	p
사회과학으로부터	한국행정학보	575	1.70	2.477	11.637 df=(3, 2111)	.000
	한국정책학회보	412	1.05	1.628		
	한국정치학회보	641	1.23	2.287		
	한국사회복지학	487	1.77	2.504		
인문학으로부터	한국행정학보	575	.05	.309	27.754 df=(3, 2111)	.000
	한국정책학회보	412	.01	.110		
	한국정치학회보	641	.23	.691		
	한국사회복지학	487	.06	.301		

인용 구분	학보 구분	논문수	피인용 평균	SD	F	p
자연과학으로부터	한국행정학보	575	.14	.478	51.623 df=3, 2111)	.000
	한국정책학회보	412	.08	.339		
	한국정치학회보	641	.01	.096		
	한국사회복지학	487	.38	.866		
예술체육으로부터	한국행정학보	575	.06	.375	6.589 df=(3, 2111)	.000
	한국정책학회보	412	.02	.176		
	한국정치학회보	641	.01	.097		
	한국사회복지학	487	.03	.173		
복합학으로부터	한국행정학보	575	.09	.359	10.450 df=(3, 2111)	.000
	한국정책학회보	412	.10	.359		
	한국정치학회보	641	.05	.223		
	한국사회복지학	487	.17	.488		

4개 학술지별로 피인용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사회과학, 인문학, 자연과학, 예술체육, 복합학 등 5개 학문분야로 부서의 피인용을 분석하였다. <표 6>은 행정학과 사회복지학은 5개 학문분야 모두로부터 어느 정도 피인용을 받고 있는 데 반하여, 정책학은 인문학, 예술체육으로부터 피인용이 거의 없고, 정치학은 자연과학과 예술체육으로부터 피인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 피인용 학문분야 모두에서 4개 학술지들 간 평균 피인용 빈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의 세부 분야별 인용 특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사회과학을 17개 세부학문분야로 구분하였다. 이들 중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행정학(정책학 포함), 정치학, 사회복지학을 제외한 14개 세부학문분야에서 세 개의 학문분야의 논문을 피인용하는 정도를 비교분석하였다.⁹⁾ 본 연구는 세 개 학술지의 피인용 패턴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인용 횟수에 따라 17개 세부 사회과학 학문분야들이 어떻게 보다 적은 수의 학문분야들로 묶일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9) 자세한 사회과학 학문별 피인용 기술통계는 부록 참조

〈표 7〉 14개 사회과학 세부학문분야들의 피인용 수준에 대한 요인분석

구 분	요인 적재치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요인
경영학	.502	.576	.129	.011	.050	-.001
경제학	.782	.020	.050	-.083	.114	.035
경찰학	.036	.679	-.047	.094	-.068	.032
관광학	-.001	.654	.057	-.064	.100	-.114
교육학	.133	-.016	.729	.013	.133	.002
문헌정보학	.008	.046	.645	.048	-.231	.170
심리학	-.278	.066	.447	-.162	.262	-.390
법학	.040	.030	.001	.745	.007	-.171
지역학	-.103	-.023	.025	.715	.112	.157
사회학	.104	-.132	-.074	.120	.569	.226
언론학	.061	.100	-.108	-.031	.673	-.010
사회과학일반	-.053	.131	.294	.089	.665	-.080
지리학	-.002	-.004	.129	-.039	.099	.808
지역개발학	-.342	.473	-.011	-.096	.132	.311

* 요인추출방법: 주성분분석(PCA), 요인추출 기준: 아이겐벨류, 요인회전 방법: 베리맥스(varimax)

요인분석 결과 각 사회과학 학문별로 행정학, 정치학, 및 사회복지학에 대한 인용 선호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영학과 경제학으로 군집화된 ‘1요인,’ 경찰학과 관광학으로 군집화된 ‘2요인,’ 지리학과 지역개발학으로 군집화된 ‘6요인’은 한국행정정보를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문헌정보, 심리학으로 군집화된 ‘3요인’은 한국사회복지학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학문들로 나타났고, 법학과 지역학으로 군집화된 ‘4요인’은 한국정치학회보를 가장 많이 인용하는 학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학, 언론학, 사회과학일반으로 군집화된 ‘5요인’은 3개 분석대상 학문들을 상대적으로 고르게 인용하는 학문들로 나타났다.

3. 행정학의 하위 학문분과 간 비교

행정학의 27개 하위 학문분야별로 피인용 빈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표 8>은 행정학의 하위 학문분야별 피인용 빈도를 정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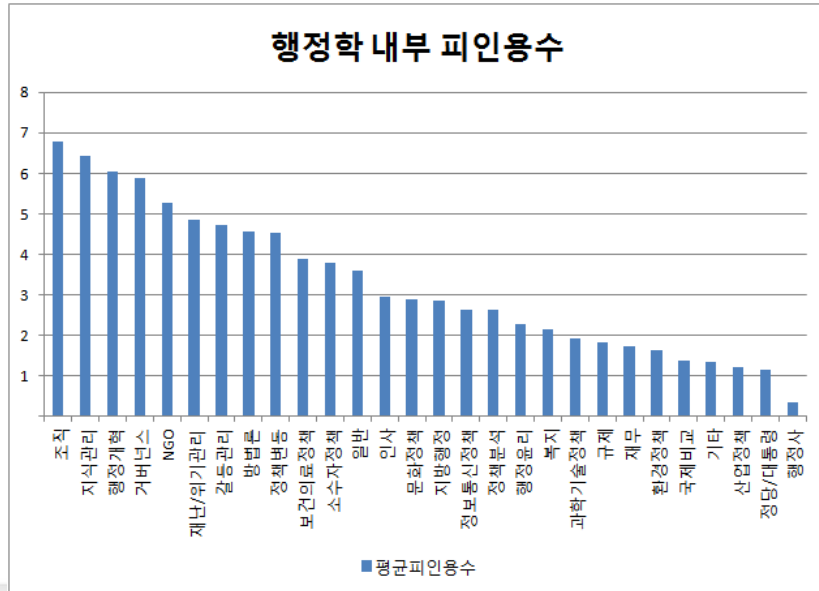
<표 8> 행정학 하위분야별 피인용 기술통계

하위분야	논문 수	평균 피인용수	표준편차	표준오차(s.e.)	최소	최대
지식관리	18	10,83	7,221	1,702	0	24
조직	62	10,37	11,212	1,424	0	53
거버넌스	55	8,80	9,836	1,326	0	52
행정개혁	98	8,01	8,382	,847	0	42
갈등관리	29	7,83	6,030	1,120	0	23
재난/위기관리	7	7,57	4,429	1,674	2	14
NGO	19	7,26	5,980	1,372	0	23
소수자정책	25	7,08	8,251	1,650	0	32
방법론	16	6,44	5,391	1,348	0	21
정책변동	11	5,82	6,161	1,858	1	22
보건의료정책	18	5,78	8,063	1,900	0	31
일반	82	4,79	5,519	,610	0	27
문화정책	9	4,67	4,796	1,599	0	15
정보통신정책	32	4,56	4,600	,813	0	16
정책분석	24	4,38	3,255	,664	0	11
복지	60	4,20	4,898	,632	0	20
인사	39	4,13	4,526	,725	0	21
지방행정	88	4,01	3,344	,356	0	16
행정윤리	15	3,27	2,251	,581	0	7
과학기술정책	15	2,93	4,334	1,119	0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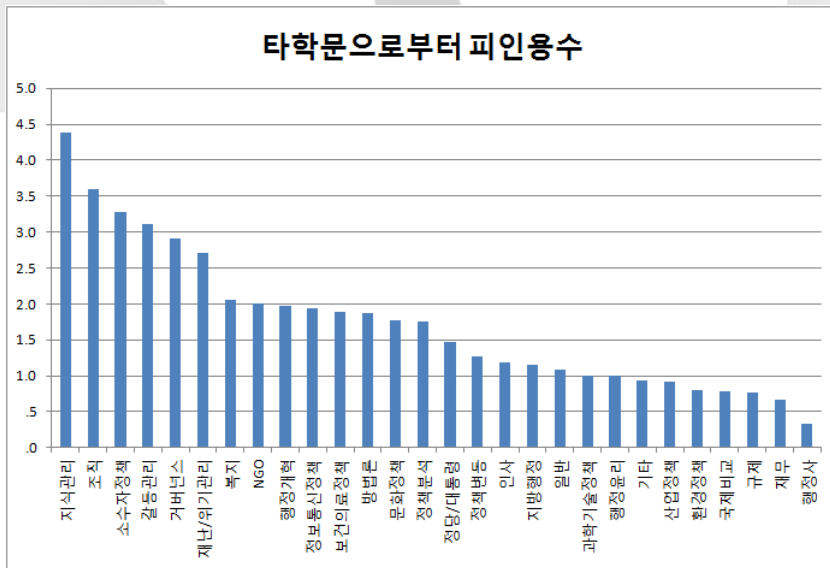
하위분야	논문 수	평균 피인용수	표준편차	표준오차(s.e.)	최소	최대
정당/대통령	19	2.63	2.362	.542	0	8
규제	31	2.61	3.413	.613	0	14
환경정책	29	2.41	2.835	.526	0	12
재무	42	2.40	3.045	.470	0	14
기타	82	2.28	2.894	.320	0	15
국제비교	19	2.16	3.371	.773	0	15
산업정책	34	2.12	2.071	.355	0	8
행정사	9	.67	.866	.289	0	2
합 계	987	5.19	6.519	.208	0	53

지식관리 분야 논문의 평균 피인용 수가 10.83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조직분야 10.38회, 거버넌스 분야 8.8회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행정사 분야의 논문은 평균 피인용 수가 0.67회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학 하위 분야별 논문수와 피인용수 간의 상관계수는 0.1(p=0.610)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하위 학문분야별로 게재 논문의 수가 많다고 해서 인용빈도가 높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행정학의 하위 학문분야별로 학문 내피인용 수준과 학문 간 피인용 수준을 비교분석 하였다. 전반적으로, 행정학 연구 분야의 다양화가 행정학 논문의 피인용 증가를 통한 행정학의 대외적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행정학의 세부 분야인 조직뿐만 아니라 최근의 연구분야인 지식관리, 소수자 정책, 갈등관리 등에 대한 타학문으로부터의 피인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그림 4>와 <그림 5>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4〉 행정학 하위학문별 행정학 내부 피인용수



〈그림 5〉 행정학 하위학문별 타학문으로부터의 피인용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정학 내부피인용이 가장 높은 분야는 조직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조직관리, 행정개혁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문 간 피인용의 경우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관리와 조직이 가장 높은 학문 간 피인용 빈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소수자 정책과 갈등관리에 대한 학문 간 피인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수자 정책은 사회복지학, 사회과학 일반으로부터의 피인용이 많으며, 갈등관리는 복합학문, 정치학, 사회과학 일반으로부터의 피인용이 많은 데 따른 결과이다. <표 9>는 행정학의 하위 학문별 피인용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9> 학문 대분야별 행정학 하위 학문분야 인용 현황(피인용 상위 5위 분야)

학분분야	행정학 하위분야	논문 수	평균 피인용수	표준편차	표준오차(s.e.)	최소	최대
사회과학	지식관리	18	3.78	2.962	.698	0	12
	조직	62	2.81	3.571	.453	0	19
	갈등관리	29	2.72	2.671	.496	0	9
	재난·위기관리	7	2.57	2.370	.896	0	7
	거버넌스	55	2.51	3.447	.465	0	14
	소수자정책	25	2.36	3.604	.721	0	15
	소계(평균)	987	1.43	2.187	.070	0	19
인문학	소수자정책	25	.52	1.159	.232	0	5
	문화정책	9	.11	.333	.111	0	1
	행정사	9	.11	.333	.111	0	1
	거버넌스	55	.07	.262	.035	0	1
	방법론	16	.06	.250	.063	0	1
	소계(평균)	987	.03	.246	.008	0	5
자연과학	방법론	16	.56	1.365	.341	0	4
	지식관리	18	.39	.502	.118	0	1
	보건의료정책	18	.28	.575	.135	0	2
	거버넌스	55	.22	.567	.077	0	2
	과학기술정책	15	.20	.414	.107	0	1
	소계(평균)	987	.12	.426	.014	0	4

학분분야	행정학 하위분야	논문 수	평균 피인용수	표준편차	표준오차(s.e.)	최소	최대
예술체육	조직	62	.47	1,020	.130	0	4
	NGO	19	.05	.229	.053	0	1
	행정개혁	98	.05	.264	.027	0	2
	정책분석	24	.04	.204	.042	0	1
	기타	82	.04	.189	.021	0	1
	소계(평균)	987	.05	.309	.010	0	4
복합학	소수자정책	25	.32	.557	.111	0	2
	갈등관리	29	.28	.528	.098	0	2
	지식관리	18	.22	.732	.173	0	3
	문화정책	9	.22	.441	.147	0	1
	정당/대통령	19	.21	.419	.096	0	1
	소계(평균)	987	.10	.359	.011	0	3

전체적으로, 사회과학, 자연과학, 복합학으로부터의 피인용은 27개 행정학 분야 전반에 걸쳐 피인용이 확인되었으나, 인문학과 예술체육 분야로부터의 피인용은 소수 행정학 분야들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으로부터의 피인용 빈도를 살펴보면, 행정학의 27개 하위분야 모두는 사회과학 학문들로부터 피인용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식관리, 조직, 갈등관리 순으로 피인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피인용이 낮은 분야는 행정사로 나타났다. 평균 1회 이상 피인용된 분야는 27개 분야 중 17개(63%) 분야로 나타났다. 자연과학으로부터의 피인용 빈도는 사회과학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행정학 하위분야들에서 나타났다. 방법론 연구가 자연과학 논문들로부터 가장 많은 피인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식관리, 보건의료정책 순으로 피인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번 이상 피인용된 행정학 학문분야는 22개(81.5%)로 나타났다. 복합학으로부터의 피인용 빈도는 자연과학으로부터의 피인용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나, 피인용 분야의 순위에서 차이를 보였다. 가장 피인용 빈도가 높은 분야는 소수자정책, 갈등관리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번 이상 피인용된 행정학 학문분야는 22개(81.5%)로 나타났다.

반면, 인문학으로부터의 피인용 빈도는 상대적으로 소수의 행정학 하위분야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수자 정책 논문에 대한 인문학(평균 0.52회)의 인용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문화정책, 행정사의 순으로 피인용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번 이상 피인용 경험이 있는 행정학 학문분야는 13개(48.2%) 분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예술체육 분야로부터의 피인용 빈도 역시 소수의 행정학 하위분야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분야(평균 0.47회)에 대한 피인용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행정개혁, NGO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 사회과학 분야별 행정학 하위 학문분야 인용 현황 (피인용 상위 5위 분야까지)

학분분야	행정학 하위분야	논문 수	평균 피인용수	표준편차	표준오차 (s.e.)	최소	최대
경영학	지식관리	18	.67	.840	.198	0	2
	조직	62	.66	1.115	.142	0	4
	행정개혁	98	.27	.635	.064	0	3
	인사	39	.26	.595	.095	0	2
	산업정책	34	.21	.479	.082	0	2
	소계(평균)	987	.14	.481	.015	0	4
경제학	문화정책	9	.22	.441	.147	0	1
	산업정책	34	.15	.558	.096	0	3
	조직	62	.15	.399	.051	0	2
	재무	42	.14	.417	.064	0	2
	행정개혁	98	.14	.380	.038	0	2
	소계(평균)	987	.07	.289	.009	0	3
경찰학	방법론	16	.19	.403	.101	0	1
	조직	62	.18	.463	.059	0	2
	행정개혁	98	.13	.397	.040	0	2
	인사	39	.13	.339	.054	0	1
	거버넌스	55	.09	.348	.047	0	2
	소계(평균)	987	.05	.249	.008	0	2

학분분야	행정학 하위분야	논문 수	평균 피인용수	표준편차	표준오차 (s.e.)	최소	최대
관광학	지식관리	18	.22	.548	.129	0	2
	문화정책	9	.22	.667	.222	0	2
	조직	62	.16	.658	.084	0	4
	거버넌스	55	.09	.348	.047	0	2
	복지	60	.07	.312	.040	0	2
	소계(평균)	987	.05	.296	.009	0	4
교육학	방법론	16	.31	.793	.198	0	3
	지식관리	18	.28	.669	.158	0	2
	보건의료정책	18	.28	.826	.195	0	3
	정책변동	11	.27	.647	.195	0	2
	조직	62	.26	.541	.069	0	2
	소계(평균)	987	.10	.430	.014	0	4
문헌정보	지식관리	18	.22	.428	.101	0	1
	정책분석	24	.04	.204	.042	0	1
	일반	82	.04	.246	.027	0	2
	정보통신정책	32	.03	.177	.031	0	1
	행정개혁	98	.02	.142	.014	0	1
	소계(평균)	987	.01	.127	.004	0	2
법학	소수자정책	25	.24	.523	.105	0	2
	규제	31	.23	.920	.165	0	5
	거버넌스	55	.13	.433	.058	0	2
	지방행정	88	.11	.596	.063	0	5
	문화정책	9	.11	.333	.111	0	1
	소계(평균)	987	.06	.326	.010	0	5

학분분야	행정학 하위분야	논문 수	평균 피인용수	표준편차	표준오차 (s.e.)	최소	최대
사회복지	복지	60	.68	1,186	.153	0	6
	소수자정책	25	.44	.961	.192	0	4
	방법론	16	.38	1,025	.256	0	4
	조직	62	.37	.854	.108	0	3
	보건의료정책	18	.33	.594	.140	0	2
	소계(평균)	987	.14	.525	.017	0	6
사회학	갈등관리	29	.21	.412	.077	0	1
	보건의료정책	18	.17	.383	.090	0	1
	소수자정책	25	.08	.277	.055	0	1
	거버넌스	55	.07	.262	.035	0	1
	환경정책	29	.07	.258	.048	0	1
	소계(평균)	987	.03	.169	.005	0	1
언론학	문화정책	9	.33	.707	.236	0	2
	정당/대통령	19	.32	.671	.154	0	2
	거버넌스	55	.25	.821	.111	0	5
	소수자정책	25	.20	.500	.100	0	2
	정보통신정책	32	.16	.723	.128	0	4
	소계(평균)	987	.07	.332	.011	0	5
심리학	소수자정책	25	.04	.200	.040	0	1
	조직	62	.02	.127	.016	0	1
	소계(평균)	987	.00	.045	.001	0	1

학분분야	행정학 하위분야	논문 수	평균 피인용수	표준편차	표준오차 (s.e.)	최소	최대
정치외교학	갈등관리	29	.45	.783	.145	0	2
	정당/대통령	19	.42	.692	.159	0	2
	정책분석	24	.29	.751	.153	0	3
	NGO	19	.26	.452	.104	0	1
	거버넌스	55	.25	.615	.083	0	3
	소계(평균)	987	.12	.406	.013	0	4
지리학	갈등관리	29	.28	.528	.098	0	2
	산업정책	34	.15	.500	.086	0	2
	과학기술정책	15	.07	.258	.067	0	1
	지방행정	88	.06	.233	.025	0	1
	지식관리	18	.06	.236	.056	0	1
	소계(평균)	987	.03	.181	.006	0	2
지역개발	재난/위기관리	7	.29	.756	.286	0	2
	행정개혁	98	.20	.475	.048	0	2
	갈등관리	29	.17	.384	.071	0	1
	거버넌스	55	.15	.405	.055	0	2
	지방행정	88	.14	.377	.040	0	2
	소계(평균)	987	.07	.288	.009	0	2
지역학	재난/위기관리	7	.14	.378	.143	0	1
	소수자정책	25	.12	.600	.120	0	3
	정당/대통령	19	.11	.315	.072	0	1
	거버넌스	55	.09	.290	.039	0	1
	정책분석	24	.08	.282	.058	0	1
	소계(평균)	987	.03	.202	.006	0	3

학분분야	행정학 하위분야	논문 수	평균 피인용수	표준편차	표준오차 (s.e.)	최소	최대
사회과학 일반/기타	지식관리	18	1.83	1,654	.390	0	5
	재난/위기관리	7	1.71	1,976	.747	0	5
	정보통신정책	32	1.38	1,809	.320	0	6
	갈등관리	29	1.21	1,497	.278	0	6
	거버넌스	55	.98	1,900	.256	0	9
	소계(평균)	987	.45	1,002	.032	0	9

사회과학 분야에 한정하여 행정학의 세부 분야별 피인용 현황을 분석하였다. <표 10>은 사회과학 분야별 행정학 하위분야 인용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사회과학 분야별로 행정학의 세부 분야에 대한 인용 선호도에서 커다란 차이가 나타났다. 17개 사회과학 학문 분야들은 자신들의 연구목적이나 방법론적 필요에 따라 행정학 논문들을 선택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행정학의 27개 모든 분야에 피인용이 고르게 분포되기 보다는 일부 분야들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학문분야에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난 행정학 하위 학문분야들을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행정학의 하위학문별로 살펴보면, 지식관리가 경영학, 관광학, 문헌정보학, 사회과학일반 등에서 가장 높은 피인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수자정책은 인문학, 복합학, 법학 등에서 많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관리는 정치학, 사회학, 지리학에서 가장 높은 비중으로 피인용 되었으며, 방법론은 자연과학, 경찰학, 교육학에서 높은 피인용을 보였다. 그 밖에, 문화정책이 경제학과 언론학에서 높은 피인용 빈도를 보였고, 재난/위기관리는 지역학과 지역개발학에서, 복지정책은 사회복지학에서 가장 높은 피인용 빈도를 보였다.

<표 11> 학문 분야별 행정학 세부분야에 대한 인용 선호도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인문학	소수자정책				
자연과학	방법론	지식관리	보건의료정책	거버넌스	과학기술정책
예술체육	조직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복합학	소수자정책	갈등관리	지식관리	문화정책	정당/대통령	
사회과학 전체	지식관리	조직	갈등관리	재난/위기관리	거버넌스	
사 회 과 학	경영학	지식관리	조직	행정개혁	인사	산업정책
	경제학	문화정책	산업정책	조직	재무	행정개혁
	경찰학	방법론	조직	행정개혁	인사	
	관광학	지식관리	문화정책	조직		
	교육학	방법론	지식관리	보건의료정책	정책변동	조직
	문헌정보학	지식관리				
	법학	소수자정책	규제			
	사회복지학	복지정책	소수자정책	방법론	조직	보건의료정책
	사회학	갈등관리	보건의료정책			
	언론학	문화정책	정당/대통령	거버넌스	소수자정책	정보통신정책
	정치학	갈등관리	정당/대통령	정책분석	NGO	거버넌스
	지리학	갈등관리	산업정책			
	지역개발학	재난/위기관리	행정개혁	갈등관리	거버넌스	지방행정
	지역학	재난/위기관리	소수자정책	정당/대통령		
사회과학일반	지식관리	재난/위기관리	정보통신정책	갈등관리	거버넌스	

행정학의 주요 분야인 조직학의 경우 예술체육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외 경영학, 경찰학, 경제학 등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행정학 내부에서 매우 많은 논문수와 피인용 빈도를 보이고 있는 행정개혁과 거버넌스 분야의 경우, 다른 학문분야에서 높은 비중으로 피인용 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행정학 내부에서 많은 논의가 있는 것에 비하여, 이러한 논의가 다른 학문에 상대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행정사, 행정윤리, 정보통신정책, 행정학 일반 등 행정학과 정책학의 고유한 연구 분야들에 대한 사회과학 학문분야들로부터의 피인용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분야들은 상대적으로 학제적 접근의 필요성이 낮은 분야들이며, 따라서 낮은 피인용 수준은 예상된 결과라 하겠다.

V. 함의 및 결론

행정학의 미래는 정부와 사회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얼마나 잘 제시하는가에 달려 있다(Kettl, 1999, 132; Raadschelders, 1999). 정부와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이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면서 행정학의 연구대상과 범위 역시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행정학은 다양한 세부 학문분야들을 발전시켜왔다. 행정학의 다학문성은 행정학이 새로운 세부 분야들로 다기화하는데 있어서 풍부한 토양을 제공하였다. 나아가 다양한 세부 학문분야들의 출현은 행정학의 새로운 분과학회들의 구성과 전문 학술지들의 창간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급속한 외연의 확대 속에서 행정학은 단순히 독립된 학문으로서의 존재를 뛰어넘어 사회과학의 중심적인 학문으로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다른 학문으로부터의 행정학 논문 피인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행정학의 위상과 학문적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다른 학문에 대한 행정학의 인용이 정치학이나 사회복지학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남으로써 행정학의 내향적 다학문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학 학술논문에 대한 다른 학문으로부터의 피인용 수준은 한국행정학보와 한국정책학회보 간에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행정학보의 경우 행정학 공동체 내부에서의 위상뿐만 아니라 학문의 대외적 위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행정학보의 학문 내 위상에 비해 대외적 위상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정책학회보의 대외적 위상은 비교 대상 4개 학술지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와 구체적인 시사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학 연구분야의 다양화가 행정학 논문의 피인용 증가를 통한 행정학의 대외적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이론이나 도구들로 무장한 행정학이 대응해야 할 사회문제들은 더 이상 분해 가능한 단순한 문제들이 아니다. 새로운 사회문제들이 끊임없이 출현하고, 또한 기존 사회문제들 역시 급격히 다양화되고 복잡화되면서 행정학 공동체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이론과 도구를 찾아 새로운 연구분야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현재 행정학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연구영역인 지식관리, 갈등관리, 소수자 정책들은 기존의 사회과학 학문들에서 상대적으로 도외시 되어왔던 분야들이다. 이러한 새로운 분야들에 대한

행정학자들의 심층적인 연구와 그 성과물들은 다른 학문으로부터의 높은 피인용률로 이어짐으로써 행정학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다른 학문으로부터 경쟁적인 이론과 방법들을 받아들이는 다학문성이 행정학에서 다양하고 새로운 분야들에 대한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다양한 연구가 행정학의 대외적 위상을 강화시키는 핵심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전체적으로 현재 행정학의 대외적 위상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행정학의 학문 간 피인용 비율이 정치학이나 사회복지학 논문들에 비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행정학자들의 새로운 연구 영역 개척이 행정학의 대외적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행정학의 대외적 위상은 정치학이나 사회복지학에 비해 취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한국정책학회보의 대외적 위상이 매우 낮은 점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학술지의 전반적인 위상은 학술지에 실린 논문에 대한 평가지표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사람들은 연구의 질을 평가함에 있어서 논문이 실린 학술지의 위상을 연구의 질에 대한 핵심 잣대로 고려한다는 점이다(Campbell, et al., 1999). 나아가 학술지의 위상은 해당 학술지의 피인용률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한국행정학회보와 한국정책학회보의 전반적 위상이 두 학술지에 실린 논문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두 행정학 학술지에 대한 다른 학문분야 연구자들의 위상 평가가 높지 않으며, 그 결과 행정학 학술지들에 대한 낮은 피인용률로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학회와 정책학회를 중심으로 행정학계의 대표 학술지인 한국행정학회보와 한국정책학회보의 전반적인 위상 제고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대안으로 정치학회나 사회복지학회 등 행정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회들과의 공동연구나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행정학 논문들의 우수성을 알리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응용성과 실천성을 강조하는 행정학이 현재 포괄하고 있는 연구분야는 상당히 광범위한 상황이다. 이러한 연구분야들은 크게 다른 학문분야와 지속적인 상호교류를 통하여 학문적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는 분야와 행정학의 전통적인 연구분야로서 행정학 공동체 내부의 논의 수준이 다른 학문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하위분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예로서 소수자정책, 지식관리, 갈등관리 등이 포함된다. 반면 후자의 예로서 전통적 행정학의 핵심 분야인 조직론 등과 현재 행정학의 주요 연구영역인 정부개혁, 거버넌스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행정학의 학문적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전자의 경우 행정학의 핵심 가치인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논의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동시에 관련 학문분야들과의 교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상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다른 학문분야들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행정학의 외연을

확대함으로써 전자의 분야들에 대한 행정학의 학문적 위상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행정학자들 간에 연구초점(focus)을 정리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이론과 방법이 상당히 정리된 분야인 조직론의 경우 다른 학문들, 특히 예술체육, 사회과학일반, 경영학, 경찰학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거버넌스의 경우 행정학계 내부의 활발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행정학계의 연구가 다른 학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당부분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적 정의나 실천적 대안에 대한 행정학 공동체 내부의 논의가 잘 정돈되고 조직화되어 있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최성욱, 2004; 조성한, 2005). 따라서 이러한 분야들에 대한 연구는 정교한 개념화와 방법론 정립 속에서 연구초점을 찾아나갈 때 행정학의 학문적 위상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연과학 분야에서 융복합 학문들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과학 학문들 간의 학문적 경계 역시 점차 붕괴되고 있는 양상이다. 급속한 환경 변화 속에서 사회과학의 학문분야들이 각자 고유한 경계를 설정하고 경계 내에서만 배타적으로 생존하기는 어려운 생태계로 변해가고 있다. 사회과학의 존재 이유가 인간과 사회문제들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제공하는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제적 연구를 통한 사회과학 학문 간 공진화는 필연적인 선택일 것이다.

이러한 학문 공진화의 생태계 조성은 자생적으로 나타난 것이기보다는 상당부분 외부적 요인들에 의해 유도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자연과학의 경우, 산업성장의 한계 속에서 학문 간 융복합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이 융복합 연구 확산의 토양이 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사회과학 역시 학문 간 공진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과정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어떤 생태계를 조성하느냐에 따라 사회과학의 학제적 접근의 방향과 속도는 크게 달라지게 된다. 노무현 정부에서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학제적, 융합적 연구에 대한 지원과 육성이 강조되어왔다. 대표적으로, BK21(Brain Korea 21), SSK(Social Sciences Korea)와 같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지원 사업들이 학제적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조함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학제적 접근의 강조보다는 각 학문의 학문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지원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컨대, 본 연구의 초점인 행정학, 정치학, 사회복지학 간의 학제적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정치학의 이론적 토대, 행정학의 지원체계, 사회복지학의 실천적 방법론이 결합된 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학문적, 실천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연구주제나 대상에 대한 선행 지식이 빈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탐색적 연구이며, 따라서 연구결과의 해석에서 일반화의 오류 가능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인용지수에 기록된 논문별 인용빈도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한국연구재단 인용 수치의 정확도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재단 측의 인용 확인과정에서 누락된 인용들이 일부 발견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다루어야 하는 논문의 수가 방대한 이유로 인해 모든 분석대상 논문들에 대한 누락여부 전수조사가 불가능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행정학 학술지를 한국행정정보와 한국정책학회보에 한정하였고, 비교대상 학술지 역시 정치학 1개, 사회복지학 1개로 한정함으로써 작은 표본으로 인한 분석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앞으로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하고 종합적인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정인·정승현. (2010). 현대 한국정치학의 정체성 담론: 역사적 고찰. <사회과학연구>. 18(1): 8-43.
- 권경득. (1996). 한국행정학의 연구경향에 관한 실증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기고논문(1967-1995)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0(4): 139-153.
- 권경득. (2006). 한국행정학보 게재논문의 연구경향 분석: 연구영역과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 50년: 1956-2006>. 서울: 한국행정학회, 617-640.
- 김대건·오수길. (2007). 한국행정연구의 연구자 특성과 거버넌스 연구영역 변화분석: 한국행정학보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1(1): 227-245.
- 김인철. (1992). 한국정책학분야의 연구내용과 그 성격: 정치학회보와 행정학보 게재논문분석. <한국행정학보>. 26(4): 1049-1067.
- 김재훈. (2008). 행정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행정학보>. 42(4): 35-68.
- 김현구. (2005). 학회장 취임사. <kapa@포럼>. 109: 6-8.
- 노화준. (2003). <정책학원론>. [전정판]. 서울: 박영사.
- 박동서. (1978). 건국 30년의 한국정치학: 행정학연구의 현황과 평가. 한국정치학회 1978년 연례학술대회논문집.
- 박순애. (2007). 행정학 연구분야의 시대적 적실성에 대한 시론적 연구. <한국행정학보>. 41(3): 321-344.
- 박치성. (2012). 행정학 학문공동체의 공동연구 네트워크 구조에 관한 연구: 1998-2009년간 24개 행정학 학술지의 논문공저자 네트워크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2(4): 129-153.
- 박치성. (2008). 응용학문으로서 행정학의 사회적 적실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행정학에 대한 사회수요적 접근. <한국행정연구>. 17(3): 3-32.
- 박치성·고길근. (2009). 인터넷 공간에서 행정학 지식의 수요와 공급: 지식 공유재 비극의 관점에서. <한국행정학보>. 43(2): 201-225.
- 박치성·김경훈. (2009). 행정학 학술논문의 소비패턴에 관한 연구: 지식사회학의 관점에서. <행정논총>. 47(3): 359-383.
- 박홍식. (2006). 학술연구 발표(1956-2006)의 성향: 내용과 변화의 추이. <한국행정학 50년: 1956-2006>. 서울: 한국행정학회, 593-616.

- 박홍식. (1994). 행정연구의 영향 및 의존분석: 외국 및 타 학문분과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정보>. 28(1): 37-53.
- 배응환. (2000). 행정학과 정치학에서 정부와 이익집단관계의 연구성향분석: 한국행정정보와 한국정치학회보의 비교. <한국행정정보>. 34(4): 83-102.
- 송근원·김태성. (2008).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나남출판사.
- 송희준. (2008). 공공난제 해결을 위한 행정학지식의 활용방향. <한국행정정보>. 42(4): 69-94.
- 안병만. (1986). 행정학보속에 나타난 한국행정학의 변화. <한국행정정보>. 20(2): 359-373.
- 안병영. (2006). 시대별 국가 과제와 행정학의 대응분석. <한국행정학 50년: 1956-2006>. 서울: 한국행정학회, 403-432.
- 오철호. (2008). 행정학 연구결과 활용의 이론적 논의. <한국행정정보>. 42(4): 7-34.
- 이가중·윤석경. (1996). 학술지 인용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정보>. 30(2): 97-112.
- 이종범. (2005). 한국 행정학 연구의 한국화: 이론의 세계화. <kapa@포럼>. 112.
- 이혜경. (1996). 한국 사회복지학의 정체성: 역사적 특수성과 기능성을 중심으로. <연세사회복지 연구> 2: 41-57.
- 정무권. (2006).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정·복지·교육·여성 등. <한국행정학 50년: 1956-2006>. 서울: 한국행정학회, 257-286.
- 정정길 외 4인. (2010). 정책학원론. 서울: 대명출판사.
- 정진식. (1994). 사회과학문헌 인용분석연구: 경제학·문헌정보학·행정학 중심. <정보관리학회지>. 11(2): 31-48.
- 조성한. (2005). 거버넌스에 대한 새로운 이해. <국가정책연구>. 19(2): 47-68.
- 주상현. (2002). 한국행정학 연구경향의 실증적 분석: 최근 7년(1995-2001)간 한국행정정보 기고논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정보>. 36(3): 39-55.
- 최성욱. (2004). 거버넌스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행정학계의 거버넌스 연구경향분석. <정부학연구>. 10(1): 239-261.
- 최성재·남기민. (2006). 사회복지행정론. 서울: 나남출판사.
- 최영훈·이강준. (2009). 학술논문 공동저술 유형 분석: 한국행정정보(1998-2008) 기고논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정보>. 43(3): 51-72.
- 한인숙. (2008). 특별편집인의 서문: 행정학 연구결과의 활용. <한국행정정보>. 42(4): 1-6.
- 허범. (1999). 정책학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개념전제에 입각한 해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Bingham, R. D., & Bowen, W. M. (1994). "Mainstream" Public Administration Over Time: A Tropical Content Analysis of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4(2): 204-208.
- Breaux, D. A., Clynch, E. J., & Morris, J. C. (2003). The Core Curriculum Content of NASPAA-Accredited Programs: Fundamentally Alike or Different. *Journal of Public Affairs Education*, 9(4), 259-273.
- Campbell, K., Vick, D. W., Murray, A. D., & Little, G. F. (1999). Journal publishing, journal reputation, and the United Kingdom's research assessment exercise. *Journal of Law and Society*, 26(4), 470-501.
- Corson, J. J., & Harris, J. P. (1963). *Public Administration in Modern Society*. NY: McGraw-Hill Book Company, Inc.
- Denhardt, R. B. (1990). 'Public administration theory: The state of the discipline' in N. B. Lynn & A. Wildavsky (Ed.) 1990, *Public Administration: The State of the Discipline*, New Jersey: Chatham House Publishing Inc.
- Dryzek, J. S. & Dunleavy, P. (2009). *Theories of the Democratic Stat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Fox, C. J. & Miller, H. T. (1995). *Postmodern Public Administration: Toward Discourse*.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 Garfield, E. (1955). Citation indexes for science, *Science*, 122: 108-111.
- Garfield, E. (1979). *Citation indexing: Its theory and application in science, technology, and humanities*. Philadelphia: ISI Press.
- Goodwin, R. E. (1996). *The Theory of Institutional Desig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nry, N. (1975, July - August 1975). Paradigms of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5(4): 378-386.
- Kettl, D. F. (1999). The Future of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of Public Affairs Education*, 5: 127-133.
- Lerner, A. W., & Wanat, J. (1992). *Public Administration: A Realistic Reinterpretation of Contemporary Public Managem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Mackenzie, W. (1967). *Politics and Social Science*. Harmondsworth: Penguin.

- McCurdy, H. E., & Cleary, R. E. (1984). Why Can't We Resolve the Research Issue in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6(3): 49-55.
- Mosher, F. (1982). *Democracy and the Public Service*. Oxford University Press.
- Perry, J.L., & Kraemer, K. L. (1986). Research Methodology in th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1975-1984.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8(3): 215-226.
- Rabin, J., Hildreth, W. B., & Miller, G. J. (Eds.). (1989). *Handbook of Public Administration*. N.Y.: Marcel Dekker.
- Raadschelders, J. C. N. (Apr. 1999). "A Coherent Framework for the Study of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9, 281-303.
- Rutgers, M. R. (2010). Theory and Scope of Public Administration: An Introduction to the Study's Epistemolog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The Foundations of Public Administration Series*.
- Rutgers, M. R. (1998). Paradigm Lost. Crisis and Identity of the Study of Public Administration. *International Review of Administrative Sciences*, 64(4): 553-564.
- Waldo, D. (1968). Scope of the theory of public administration. In J. C. Charlesworth (Ed.), *Theory and Practice of Public Administration*. Philadelphia: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Science.

기고일: 2012. 10. 24.

심사일: 2012. 11. 07.

확정일: 2012. 12. 24.

〈부 록〉

학분분야	학회지명	논문수	피인용평균	편차	최소	최대
경영학	행정학회보	575	.19	.582	0	4
	정책학회보	412	.06	.269	0	2
	정치학회보	641	.01	.096	0	1
	사회복지학보	487	.02	.168	0	2
	Total	2115	.07	.348	0	4
경제학	행정학회보	575	.08	.303	0	3
	정책학회보	412	.06	.268	0	2
	정치학회보	641	.01	.118	0	1
	사회복지학보	487	.04	.280	0	3
	Total	2115	.05	.248	0	3
경찰학	행정학회보	575	.07	.282	0	2
	정책학회보	412	.03	.194	0	2
	정치학회보	641	.00	.056	0	1
	사회복지학보	487	.01	.078	0	1
	Total	2115	.03	.179	0	2
관광학	행정학회보	575	.06	.340	0	4
	정책학회보	412	.04	.222	0	2
	정치학회보	641	.00	.056	0	1
	사회복지학보	487	.02	.163	0	2
	Total	2115	.03	.220	0	4
교육학	행정학회보	575	.12	.447	0	4
	정책학회보	412	.08	.405	0	4
	정치학회보	641	.06	.265	0	3
	사회복지학보	487	.23	.832	0	9
	Total	2115	.12	.521	0	9

학분분야	학회지명	논문수	피인용평균	편차	최소	최대
문헌정보학	행정학회보	575	.02	.155	0	2
	정책학회보	412	.00	.070	0	1
	정치학회보	641	.00	.039	0	1
	사회복지학회보	487	.01	.078	0	1
	Total	2115	.01	.097	0	2
법학	행정학회보	575	.07	.344	0	5
	정책학회보	412	.04	.297	0	5
	정치학회보	641	.10	.437	0	5
	사회복지학회보	487	.06	.269	0	2
	Total	2115	.07	.352	0	5
사회학	행정학회보	575	.03	.174	0	1
	정책학회보	412	.03	.161	0	1
	정치학회보	641	.08	.311	0	3
	사회복지학회보	487	.04	.232	0	3
	Total	2115	.05	.235	0	3
언론학	행정학회보	575	.06	.279	0	3
	정책학회보	412	.07	.395	0	5
	정치학회보	641	.07	.417	0	6
	사회복지학회보	487	.04	.223	0	2
	Total	2115	.06	.340	0	6
심리학	행정학회보	575	.00	.059	0	1
	정책학회보	412	.00	.000	0	0
	정치학회보	641	.01	.079	0	1
	사회복지학회보	487	.09	.396	0	6
	Total	2115	.02	.200	0	6

학분분야	학회지명	논문수	피인용평균	편차	최소	최대
지리학	행정학회보	575	.04	.214	0	2
	정책학회보	412	.01	.120	0	1
	정치학회보	641	.01	.111	0	2
	사회복지학보	487	.01	.078	0	1
	Total	2115	.02	.143	0	2
지역개발학	행정학회보	575	.09	.321	0	2
	정책학회보	412	.05	.231	0	2
	정치학회보	641	.00	.056	0	1
	사회복지학보	487	.05	.244	0	2
	Total	2115	.05	.233	0	2
지역학	행정학회보	575	.04	.237	0	3
	정책학회보	412	.02	.138	0	1
	정치학회보	641	.17	.509	0	4
	사회복지학보	487	.03	.195	0	2
	Total	2115	.07	.332	0	4
사회과학일반	행정학회보	575	.53	1.097	0	9
	정책학회보	412	.35	.843	0	6
	정치학회보	641	.36	.894	0	8
	사회복지학보	487	.85	1.441	0	9
	Total	2115	.52	1.106	0	9